

• 해외 고등교육 I

# 카타르의 교육개혁

## -국내외 언론에 나타난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의 현주소-

정소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

### I. 머리말



세금과 공공요금미 제로인 나라, 25만 명의 자국민은 유치원과 대학까지 무료이고 의료보험도 무료인 나라, 1인당 GDP 7만 달러, 세계단일 가스전으로는 세계 최대이며 300년 이상 사용해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사우스 파스(South Pars) 가스전으로 부가 넘치는 나라가 카타르다.<sup>1)</sup>

인구는 약 100만 명(외국인 포함)의 소국(小國)인 카타르가 아랍권의 새 교육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동 국가가 엘리트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는 개방에 폐쇄적일 것이라는 과거의 편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며 세계적인 교육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미국의 우수 대학의 학과를 선별해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에 입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는 에듀케이션 시티가 운영되도록 뒷받침한 카타르 재단과 현재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 5개 대학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II.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

에듀케이션 시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티를 설립한 카타르 재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재단은 1995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카타르(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 국왕이 설립하였고 모자(Sheikha Mozah Bint Nasser Al-Missned) 왕비가 이사장으로 있다.

이 재단의 설립 취지는 국가의 가장 큰 자원은 인재라는 원칙으로 교육, 연구, 커뮤니티 및 복지에 중점을 두는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왕은 1995년 6월 부왕(父王) 칼리파를 몰아내고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며 곧바로 국가 개조 작업에 착수하여 교육 도시와 에너지 도시 등 각종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에듀케이션 시티의 기초를 세운 것이 하마드 국왕이라면, 살을 붙이고 숨을 불어 넣은 것은 모자 왕비다. 모자 왕비는 하마드 국왕의 두 번째 부인으로, 국왕의 총애를 받으며 카타르 국정 운영에 있어 국왕 다음

1) 2007년 10월 기준 카타르의 1인당 GDP는 70,754달러로 세계 3위이다.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카타르 재단은 교육·과학기술 관련 사업에 관해 전권을 갖고 있다.

한 예로, 코넬 의대를 유치할 당시 모자 왕비는 미국 본교를 수차례 방문했고 7억 5000만 달러의 사재를 털어 기부하는 등의 공을 들인 끝에 코넬 의대를 카타르로 끌고 오는 데 성공했다.

카타르 재단은 카타르가 지식 기반 사회로 변모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카타르라는 지역과 국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 받아 자국이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 개요〉

- 위치 : 카타르 도하 외곽 알샤카브(Al-Shaqab) 지방
- 면적 : 1012만 평방미터
- 투자 금액 : 30억 불
- 학생수 : 약 1000여 명 (신입생 300여 명/연)
- 국가별 학생 : 30여 개 국 (이란, 레바논, 오만, 튀니지, 파키스탄, 요르단, 시리아, 알제리 등 중동 지역 이 중, 카타르 출신은 50%)

것을 이 곳 카타르 부모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텍사스 A&M대에서 이슬람의 전통의상인 아바야<sup>2)</sup>를 두르고 공부하는 한 여학생은 친구들이 자신을 공주처럼 대하지만 작업복을 입고 산업계로 나아갈 최초의 카타르 여성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또 마리암 알 이브라힘(Maryam al Ibrahim)이라는 여학생은 아버지나 남편의 경제적 보조 없이 본인의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 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여학생의 비율을 보면, 카네기 멜론대학 경영학과는 55%, 컴퓨터 공학과는 67%, 공대인 텍사스 A&M대학 40% 등에 이르러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 Ⅲ.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

#### 1. 여성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에듀케이션 시티



그림 1. 에듀케이션 시티

에듀케이션 시티는 여성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카타르에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많은 부모들은 딸이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가거나 남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넬대는 카타르에서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부하는 기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학교 수업 이 외에도 숙제를 하거나 교외 프로그램을 남학생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 2. 젊은이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하는 에듀케이션 시티

에듀케이션 시티의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에 대해 흥미로워 한다.

중국에서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조지타운대의 한 교수는 “카타르는 가르치기에 활기가 넘치는 장소이다. 많은 학생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한다. 학생들이 세계화의 일환이 되기를 매우 바라는 동시에 그들의 신념, 가족, 전통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고 말하고 있다.

2) 아바야(abaya)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고 다니는 검은 천을 일컫는다.



그림 2. 히잡과 터번을 두른 남녀가 함께 강의를 듣는 풍경

에듀케이션 시티는 카타르의 거대한 기름과 가스로 인하여 가능했던 매우 고가의 실험 작품이다. 코넬 의대 하나만 보아도 카타르 재단은 11년간 7억 5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에 있는 많은 미국 대학이 해외 분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금에 의지하는 반면 카타르 분교들은 정부 보조에 의존한다. 카타르는 학교 부지는 물론 건물과, 교수들의 봉급, 주택 등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에듀케이션 시티의 대학들에게는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 의과대학 전경

그렇다면 카타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중동지역 최초의 여성각료인 알 마흐 무드 교육부장관에 따르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글로벌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석유 자원이 떨어진 이후를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또한 9.11 사태 이후 중동인의 미국 유학이 어려워진 것도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한다.

에듀케이션 시티의 건설에만 3조 이상 들었고 카타르는

내국인의 학비 관련 예산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대고 있음도 강조했다.

하지만 카타르 교육사회의 미국 대학들이 가진 가장 큰 장애물은 적절한 수의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주택 무료 제공, 보너스, 세금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악한 카타르에 오려는 교수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본교 교수들이 몇 주간 에듀케이션 시티에 와서 학생을 가르치는 등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뉴욕 코넬 의대의 안도니오 고토(Antonio M.Gotto) 학장은 “6명 정도의 교수가 카타르로 이주했고 30~40명 정도는 몇 주씩 카타르를 방문해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15% 정도의 강의를 비디오 컨퍼런스 형식 등으로 이뤄지는데 가능한 많은 교수를 카타르로 보내 이를 5% 정도로 낮출 예정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10일자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카타르뿐 아니라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아부다비에 뉴욕대가 5,000만 달러(약 470억원)를 기부 받는 조건으로 2010년도에 분교 설립 계약을 하였고, 미시간 주립대와 로체스터 공대는 두바이에 분교를 설치하는 등 미국 대학의 해외 공략이 줄을 잇고



그림 4. 에듀케이션 시티 지도 출처 : 카타르 재단

- |                                    |                                      |
|------------------------------------|--------------------------------------|
| a Off-site shopping center         | l. Liberal arts and science building |
| b. Off-site housing                | j. VCU-Q                             |
| c. The Science and Technology Park | k. Temporary of HQ                   |
| d. Convention center               | l. The learning center               |
| e. Medical college                 | m. Qatar academy                     |
| f. College of engineering          | n. Sports complex                    |
| g. Ceremonial courtyard            | o. Al jazera children's channel      |
| h. Accomodation                    |                                      |

있다. 이는 미국에도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9.11 사태 이후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9.11 테러 이후 3년간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학생수가 2.4%씩 감소하는 것 등의 영향이다.

#### IV. 에듀케이션 시티에 있는 미국대학 현황

(본 내용은 2008.2.11일 뉴욕타임즈 기사를 참고, 재구성 한 것임)

몹시 더운 10월 밤, 페르시아만에 있는 수도 도하 리츠 칼튼 호텔에 수백 명이 넘는 가족들이 에듀케이션 시티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카타르, 방글라데시, 시리아, 인도, 이집트 등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옷차림을 하고 미국에서 건너온 5개 대학의 입학 정보를 듣기 위해 에듀케이션 시티에 모인 것이다. 에듀케이션 시티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 교외에 세워진 2500에이커 부지의 캠퍼스로 1995년 국왕비의 주도하에 도시가 구상되어 2003년 10월 공식 출범하게 된 세계 최대의 교육 단지이다. 석유와 가스로 벌어들인 돈이 대담한 설계로 건축된 학교 건물과 교수의 월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비의 재원이 된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미국 대학 집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에듀케이션 시티는 현재 5개 미국 대학의 입주로 시작하여 내년도에 약 300여 명의 신입생이 들어올 예정이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진출을 계획 중이며 이러한 해외의 수요와 맞물려 미국의 최고 수준의 대학을 카타르에 도입해온 것이다. 이 곳에 입주한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코넬 의대, 텍사스 A&M대, 카네기 멜론대, 조지타운대 총 5개의 대학들은 미국 본교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며 향후 입주할 대학들 역시 미국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곳에 정착할 것이다.

특히, 코넬의과대학(Cornell's medical school)은 예과

과정(pre-med training)과 전문 과정(professional training)을 6년 코스로 묶어 구성하였다. 이 대학은 금년 봄에 처음으로 카타르에서 교육 받은 의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은 10년 전 카타르의 여성들을 위해 미술 및 디자인 과정(Art & Design)을 개설하였으며 올 해부터는 남성 입학도 허가하기 시작했다.

카네기 멜론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는 컴퓨터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에듀케이션 시티 학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텍사스 A&M대학(Texas A&M)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프로그램은 석유 엔지니어링이다. 텍사스 A&M대학의 마크 웨이홀드 학장은 학교가 화학, 전기, 기계, 석유 공학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만큼 그들의 연구가 카타르의 석유, 가스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가장 최근에 입주한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는 외교학(foreign service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곧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의 저널리즘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입학 설명회에서 발레리 제르미젠코(Valerie Jeremijenko) 버지니아 커먼웰스대학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기를 바란다며 에듀케이션 시티는 매우 경쟁적이지만 학생들이 낙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에듀케이션 시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앞서 소개한 학교에 지원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이 향후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에듀케이션 시티는 입학기준, 학위 취득, 커리큘럼, 시험 등이 미국의 캠퍼스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물론 교육 철학 역시 동일하다. 이는 중동에서 개방을 선도하고 있는 카타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곳의 시스템이 미국과 동일하다보니 등록금 역시 미

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카타르 재단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졸업 이후에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려는 실력이 뛰어난 세계 최고 인재들을 확보해 경제발전의 일군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카타르 내 카네기 멜론대학의 찰스 소프(Charles E. Thorpe) 학장은 “다양한 국가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대개 비슷한 종류이거나 파트너십을 가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곳은 미국 교육(American education)이며 이것이 바로 큰 변화이다.” 라고 말한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은 미국 교수들과 미국 방식으로 사고하고 교육받으며, 학생들은 몇 주간 미국 본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이 교육 도시에는 상기 대학들 이외에도 왕실 자체가 다니는 카타르 국립학교(Qatar Academy) 등 최고 수준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카타르재단 본부, Rand 연구소, 어린이를 위한 Learning Center,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생 교육을 위한 Bridge program 개설 학교 등 다양각색의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 <주요 대학>**
- 1998년 버지니아커먼웰스대학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패션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픽, 인문학 등 학사학위
  - 2002년 코넬의과대학(Cornell Medical University)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과정
  - 2003년 텍사스 A&M대학(Texas A&M University)석유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 등 학사학위
  - 2004년 카네기멜론대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학사학위
  - 2005년 8월 조지타운대학(Georgetown University)  
외교학과 학사학위
  - 2008년 노스웨스턴대학(가을 개교 예정, 신입생 약 40명) (Northwestern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학과

## V.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QSTP : Qatar Science & Technology Park)



그림 5. 에듀케이션 시티의 한 부분인 과학기술단지

에듀케이션 시티의 맞은편에는 카타르 과학기술단지(QSTP)가 조성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 총 120만㎡ 규모로 지어지는 QSTP는 에듀케이션 시티를 맡고 있는 카타르 재단의 또 다른 실험작으로 2007년 말 기준 35만㎡ 개발이 완료되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2억 2500만 달러(2008년~2013년)를 들여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이 곳의 취지는 세계적인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중동 벤처기업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에듀케이션 시티 내에 교육 기관과 산학연관 학습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밀한 계산 하에 설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개발한 기술을 QSTP에서 상용화하고, QSTP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다시 대학에서 연구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QSTP의 기업들은 회사 설립이 용이하고 토지와 건물 등을 100% 소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도 전액 면제 받는 등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입주 기업은 반드시 연구 개발에 힘써야 하며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연구 개발 인력이어야 한다.

또한 세계의 브레인들이 에듀케이션 시티 안에서 선진 기술 연구, 자녀 교육, 의료, 주거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QSTP의 CEO 율리안 로버츠(Eulian Roberts)는 “주변 대학들과 초등·중등·고등학교

교 시설이 있어 연구원 자녀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코넬 의대 병원이 들어서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설 역시 누릴 수 있다”며 “연구원들이 일하는 데 필요할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한다.

여기에 카타르 정부는 연간 GDP 2.8%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QSTP가 완공되려면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Cisco, MS·Shell, Exxon Mobil, GE, EADS, SMARD 등 14개 정도의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R&D 센터가 이미 QSTP에 입주하여 현재는 2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임시 건물에서 일하고 있다.

카타르정부는 5년 안에 50개 기업에서 모두 1000명의 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STP에서는 항공, 의료, 가스 및 석유화학, 물자원 관리, 환경, 정보 통신 기술 등 6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국내외 언론에 나타난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시티에 대해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는 풍부한 오일과 가스로 창출된 부(富)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국가의 인재 육성에 집중하려는 카타르 정부의 교육정책과 미국의 교육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미국 대학들의 뜻이 맞물려 만들어진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든 부족한 나라이든지 간에 국가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역시 내일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카타르의 국가 의지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뉴욕타임즈 <http://www.nytimes.com/> Global Classroom “In Oil-Rich Mideast, Shades of the Ivy League”
- 주카타르 대사관 홈페이지 <http://qat.mofat.go.kr/>
- 카타르 재단 홈페이지 <http://www.qf.edu.qa>
- 한국경제 : 「카타르에 세계 최대 해외 대학타운 만드는 알 마흐무드 교육부 장관」, 2007. 12. 6
- 조선일보 : 「美 대학들, 해외로 해외로」 2008. 2. 11, 「모래위의 기적 6가지 비밀 QATAR 스페셜 리포트 : 카타르가 쓰는 新 아라비 안나이트」 2007. 5. 5
- 동아일보 : 「사막에 핀 아이비리그...카타르, 코넬대 등 분교 유치」 2008. 2. 13
- 한겨레 : 「미 대학 ‘국외 캠퍼스’ 설립붐물」 2008. 2. 10
- 매일경제 :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엘리트 교육 허브로」 2007. 12. 31

## 필·자·소·개

### 정소나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